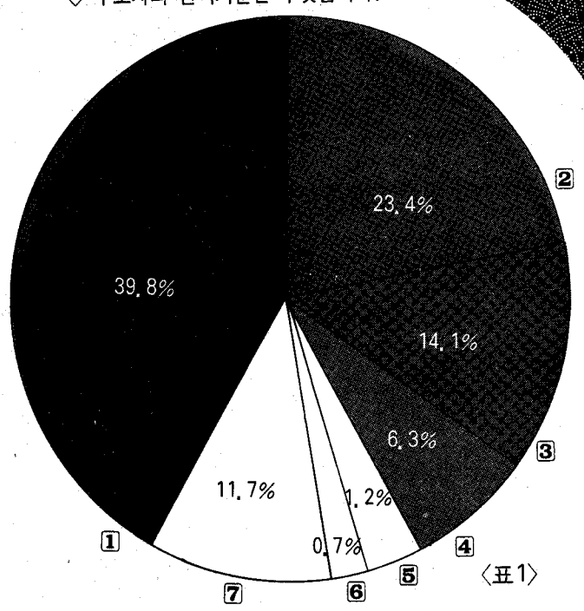
"한표가 소중한 때"

◇총선을 앞둔 본교 학생대상 정치 인식도 조사

◇ 후보자의 선택기준은 무엇입니까?



〈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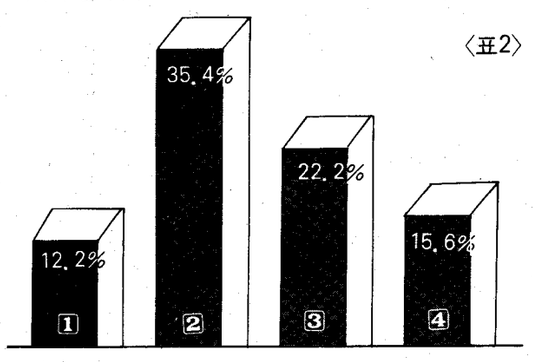
1인물의 도덕성과 참신함
2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의 인물
3소속정당
4선거공약
5출신지역·연고
6물품·선심공약
7기타

설문조사

14대 총선을 맞이하여 대학주보가 지난 3월 12일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치적 냉소주의'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해소시키고자 한 이번 설문조사는 총 500부 중 410부(남자 74.4%, 여자 19.0%)의 설문을 SPSSPC+ 통계 프로그램으로 처리한 것이다. 각 단대별 분포를 보면 문리대(14.4%), 법대(0.7%), 정경대(12.4%), 사범대(4.9%), 가정대(8.0%), 한의대((4.1%), 치대(2.9%), 약대(3.2%), 체대(9.5%), 외국어대(6.3%), 사회과학대(16.6%), 자연과학대(5.1%), 공과대(0.5%), 산업대(0.2%), 체육과학대(0.2%)였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8.8%), 2학년(34.1%), 3학년(23.9%), 4학년(22.4%)의 분포율을 나타내었다.

〈 편집자 註 〉

◇ 13대 총선과는 달리 14대 총선에서 민중진영의 '민주투사' 이미지의 변화(화합이미지)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1매우 만족한다
2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약간 만족한다
4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Ⅰ. 민주주의와 선거

정치란 곧 民意의 정치를 의미한다. 民意의 정치라 함은 다수의 의견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정치를 뜻한다. 다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곧 다수의 정치참여 권리를 맡은 지도자가 필히 수행해야 할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기에 민주정치를 추구하는 현실사회에서 선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요즘,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라기 보다는 정치인, 그들만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낮지만은 않다. 이러한 까닭에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상당히 냉소적이며 무관심해 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는 올바른 지도자 보다는 비뚤어진 지도자를 탄생시키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태도가 중요한 시기이다. 올바른 지도자의 선출은 곧 民들의 정치참여 권리를 바르게 수행하는 출발점이다. 그렇기에 시기시기마다의 선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참여 권리의 포기, 정치참여 권리를 내팽개치는 국민은 참다운 지도자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우리의 역사라 할 때 정치적 냉소주의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대두된다고 하겠다.

Ⅱ. 설문문항별 분석

①14대 총선 투표에 대해

"14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날은 언제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월 24일(95.9%)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는 응답자들이 설문에 응하는 동안 대부분 주위 동료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또는 이를 확인한 후 답변함으로써 투표의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전사회에 팽배해 있는 정치적 무관심의 단면이며 19일이나 27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1.7%나 되었다는 결과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통계수치로 나타났다.

"이번 14대 총선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투표를 하겠다(63.2%), 하지 않겠다(14.4%), 그때의 상황에 따라(11.5%), 투표자체에 관심이 없다(5.4%)고 답하였으므로 대체로 학생들이 14대 총선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하지 않겠다, 상황을 봐서, 또는 투표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역시 무시해서는 안될 수치임에 틀림없다.

"투표를 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투표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8.0%), 정치인사들의 도덕적인 타락성 (5.9%), 투표를 해보았자 현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6.8%)라고 하였으나 투표에 참가하겠다는 의사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이 문항에 대한 응답율은 저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통계결과 역시 사회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원인으로 나타나 상당히 한 문제로 인식된다고 하겠다.

한표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후보자의 선택기준은 무엇입니까?"라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 소속정당(14.1%) 선거공약(6.3%) 출신지역. 연고(1.2%) 인물의 도덕성과 참신함(39.8%) 물품. 선심공약 (0.7%)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의 인물(23.4%)이라고 답함으로써 '인물'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최우선의 기준이 되고 있슴을 알 수 있었다.

13대 총선이 '소속정당'이나 '출신지역. 연고'를 우선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못했다면 14대 총선을 맞이한 현시기 '인물'중심으로 그 선택기준을 변화 시키고 있다는 것은 14대 총선에 임하는 유권자 정치의식의 고양을 단편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②선거에 관한 신뢰도

14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시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신뢰한다(2.7%) 약간 신뢰한다(26.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29.0%)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31.5%)고 답변함으로써 선관위에 대해 대체로 불신의 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기간 동안 언론의 보도성향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다고 할 때 언론의 선거관련 보도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는 매우 신뢰한다(2.0%) 약간 신뢰한다(23.4%)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32.2%)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32.7%)고 나타남으로써 언론의 선거관련 보도 태도에 대한 신뢰도의 점수 역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공약의 남발을 우려하고 있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각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매우 신뢰한다(0.0%) 약간 신뢰한다(10.5%)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28.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50.7%)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시말해서 선거공약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50.7%)상황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이는 선거 후보자들의 책임있는 선거공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주는 조사결과라 할 수 있겠다.

공정선거를 14대 총선의 핵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신뢰도 역시 매우 신뢰한다(1.2%) 약간 신뢰한다(14.1%)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29.0%)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46.8%)는 점수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신뢰하는 편보다 신뢰하지 않고 있는 편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름아닌 지난 많은 선거결과에 대한 공정성의 평가라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에 관한 정보를 주로 신문(54.6%) 방송(19.8%) 잡지(1.5%) 정당홍보물(0.0%) 시사논평집(11.0%)에서 얻고 있다는 학생들은 방송매체의 정치보도보다는 인쇄매체의 정보를 더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직까지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방송의 현주소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정치변화에 관한 만족도

일반적으로 정치기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여러가지 정치적 변화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3당통합(現민자당)'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3.4%) 약간 만족한다(8.0%)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7.8%)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72.2%)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72.2%)'는 응답율에서도 알 수 있듯이 巨野에서 巨與로의 변화에 대해 상당수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공세력의 새로운 정치진입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한다(8.8%) 약간 만족한다(3.2%) 약간 만족하지 않는다(8.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79.5%)고 응답,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가장 많은 의견으로 나타났으나 매우 만족한다(8.8%)고 응답한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정치적 변수로 나타났다.

한편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내각책임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6.6%) 약간 만족한다(14.9%)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17.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9.8%)고 응답함으로써 이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도 역시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시기 정치적 상황과 현사회의 정치적 상황이 상당할 정도로 급변화 했다는 점을 나타내는 이러한 전략의 변화 역시 유권자인 국민의 후보 선택기준이 변화했슴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념적인 입장의 차이를 알아 볼 수 있는 민중진영의 제도권 정치(선거등)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매우 만족한다(28.8%) 약간 만족한다(38.5%)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13.2%)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7.6%)는 응답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역시 이러한 수치는 13대 총선과는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 또하나의 변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같은 결과는 정치일변도로 흘렀던 정치적 입장이 선거라는 매개체를 통한 민중진영의 국민설득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유권자의 의식변화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고립된 정치적 민주화의 주장보다는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정치의 참여 방안에 학생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덧붙여 "이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소득의 균등한 분배'를 1차적인 해결과제로 손꼽았으며 '교육의 체질개선'을 2위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3위로 각각 지적하였다. 이는 기본권의 보장, 사회의 도덕성 회복, 대외관계의 발전, 남북통일, 교통체증 등에 대한 문제점 보다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문제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학생 유권자들의 의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상관관계 비교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도와 언론의 선거관련 보도(r=.7166 p<.001), 선거공약 (r=.6039 p<.001), 공정선거 (r=.6382 p<.001)에 대한 신뢰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선관위를 신뢰하면 할수록 또는 신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선거공약이나 공정선거에 대한 신뢰도가 변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서 선거공약과 공정선거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를 증폭시킴으로써 가능해 질 수 있으며 이는 선관위의 참다운 역할수행이 14대 총선에 대한 신뢰도의 중요변수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공정선거에 대한 신뢰도와 언론의 선거관련 보도(r=.7102 p<.001)에 대한 신뢰도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이 선거에 관련된 보도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한다면 공정한 선거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공정한 선거란 언론의 정확한 진실보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선거공약과 공정선거에 대한 신뢰도 사이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슴이 입증되었다. (r=.6980 p<.001) 즉 입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선거공약은 공정선거가 이루어 지지 못할 때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치룸으로써 후보자들의 선거공약 역시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치적 변화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3당통합과 5공세력의 정치권 대두 (r=.6378 p<.001)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바 이는 3당통합에 만족하면 할수록 5공세력의 정치진입에 대해 만족하거나 5공의 정치진입에 대해 불만족 할수록 지난 3당통합에 대해서도 불만족 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Ⅳ. 올바른 한표의 행사

정치지도자가 민의를 수렴하지 않은채 독단적으로 民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이는 독재정치의 출발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治者에게만 돌려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다수의 의견을 귀담아 정치를 행할 수 있는 민주사회는 우선 올바른 지도자를 만드는 유권자들의 참다운 권리행사에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올바른 대표자가 올바른 국민의 바른 소리에 있다고 한다면 14대 총선은 사회변화의 첫발을 내딛는 오늘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정치에 대한 넓은 안목과 비판, 특히 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남다른 열정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의 고민은 어느 곳에서나 살아 숨쉬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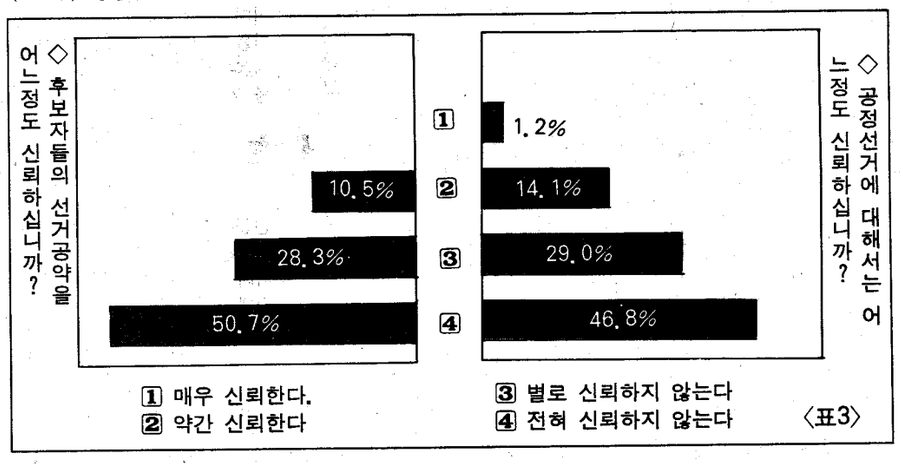
그러한 열정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로 얼룩진다면 내일의 정치를 밝히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야 말 것이며 또다시 역사의 어두운 면만이 사회에 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보다 나은 미래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한표 한표 소신껏, 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만이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밑걸음이 될 것이다.

〈여론조사부〉

◇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어느정도 신뢰하십니까?

◇ 공정선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신뢰하십니까?



1 매우 신뢰한다.
2 약간 신뢰한다
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표3〉

선거 공정성에 문제제기 약간불신(29%)·매우 불신(46.8%)
무관심·정치냉소주의 타개할 투표 참여 절실

慶熙大學校 出

인 문 과 학

朴利道·金戴弘·李美媛·金鍾會 共著
문학의 이해
크라운版／253面／5,000원
文學全般을 최신 자료와 최신의 이론으로 的確, 明瞭하게 설파한 槪論書. 대학교재와 文學志望生을 위한 入門過程에 적합한 例文과 설명으로, 現在로서는 가장 완벽하다 할 수 있는 文學徒必讀의 指針書이다. 學究的인 면에 중점을 두었다.

李殷相詩集
祈 願
—分界線을 밟고—
크라운版／138面／3,500원
鷺山선생이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分界線을 찾아 쳐놓은 카시철망을 부둥켜 안고, 불타오르는 가슴을 풀어헤친 시조형식의 詩 42제목 205수를 모은 것이다. 자유, 평화, 사랑을 갈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과 가슴에 깊은 호소력을 갖고 우리의 심금을 울려준다.

朴魯春·高敬植 著
大 學 漢 文
크라운版／170面／3,500원
大學 漢文 練習
4×6倍版／ 82面／2,000원
대학생들의 교양을 위한 漢文으로 中國歷代의 名文과 우리나라 漢文의 정수를 발췌, 文學 장르별로 편찬한 필독서이다.
本書는 독자들로 하여금 漢文에 대한 基礎的 理解를 통해 歷代 古典에의 친숙한 接近을 꾀하고 있다.

南基英·兪道鎭·李康洙·李和秀·黃文秀 共著
哲 學 槪 論
크라운版／259面／4,800원
근본적인 哲學的 사고의 개발을 위한 대학생들의 必讀書. 특히 서양철학, 사회철학, 동양철학, 불교철학의 주요 흐름을 각 전문 교수들이 날카로운 필치로 전개하고 있다. 편견없이 다각적으로 哲學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시.

國語國文學科 교재 편찬위원회 편
大學文章論
4×6倍版／342 面／5,000 원
본서는 대학교육의 기반이 되는 문장 교육을 이론과 실제의 측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도록 쓰여졌다. 특히 각종 논문작성의 기본이 되는 논리법과 문단 구성 등을 풍부한 예문을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가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살필 수 있도록 배려했다.

裵基烈 著
대 학 불 어
菊版／309 面／5,000 원
프랑스語의 초급과 중급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문법 독본 및 연습문제를 망라하여 대학 교재로서의 중심을 기하였다. 기존에 보충교재와 회화, 발이쓰기까지를 겸하므로써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였다.

朴 貞 薰 著
敎育方法의 理論과 實際
菊版／248 面／4,500 원
오늘날의 敎育은 교육목적에 따른 [illegible] 교육목표의 타당하고도 명확한 [illegible]를 가지고 있고, 전공교과의 敎育課程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가를 연구하며, 또다 효율적으로 그것을 [illegible] 교과서들의 방법과 기술 및 지도상의 유의점을 중심적으로 이론과 방법을 교육해야 [illegible]는 著者의 敎育理論을 바탕으로 지어진 力著이다.

사 회 과 학

趙永植 著
Oughtopia
菊版／213面／3,500원
本 著書는 學問 전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册으로 우주의 본질과 현상에 대해 분석,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著書 특유의 主意生成論, 全乘和理論, 오토피아의 原理를 提示하여 인류가 값있게 살아갈 수 있는 당위적 요청사회를 주장한 세계 最初의 著書로 영국 「퍼거먼」출판사에서도 출판한 話題의 册.

國際平和硏究所 編
Peace Studies
菊版／686面／15,000원
世界大學總長會 부설 연구소인 國際平和硏究所가 펴낸 世界的인 碩學들의 平和에 관한 英文 論文集. 趙永植박사의 「平和는 凱旋보다 貴하다」등의 論文을 비롯한 5人의 노벨상 수상자와 大學總長들의 論文이 수록되어 있는 平和硏究에 관한 必讀書이다.

國際平和硏究所 編
A Road to World Peace
菊版／349面／10,000원
1981년 UN에서 처음으로 공표한 「세계 평화의 날」제정을 기념하여 발간된 서적으로, 제 1 장에는 세계 평화의 날 제정을 위한 노력을, 제 2 장에는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 전문을, 그리고 제 3 장에는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지지서신 및 협조내용과 UN의 서류 등을 담아 국제 평화 연구소에서 펴낸 영문판 서적이다.

Alexander J. Gorth 著
Progress and Chaos: Modernization and Rediscovery of Religion and Authority
菊版／234面／5,000원
本書는 Gabriel Almon 이후 Ted R. Gurr에 이르는 여러 학자들이 행한 政治發展연구에 대해 검토하고 그 기본 分析들을 비판한 것이다. 저자는 중가일로의 혼란상태를 고려하면서 진보를 향해 나아갈 때 현대 종교와 국가의 권위는 안정된 세력으로서 재건될 것이라고 조망하고 있다.

金鳳式·L. L WADE 共著
The Political Economy of Success
菊版／270面／3,900원
本書는 現在의 커다란 問題點으로 부각되고 있는 經濟發展과 이에 관련된 公共政策의 韓國的 展開에 관해 다각적 觀點·歷史的 측면에서의 韓國의 發展, 世界속에서 현재의 韓國 등—에서 硏究하고 立證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朱洙萬 譯
막스 베에버어의 政治思想
크라운版／424面／7,000원
20세기 최고의 世界的 社會科學者의 한 사람이며 독일의 마키아벨리라 지칭되었던 Max Weber의 政治思想을 그의 著書에서 번역한 책으로서 社會科學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필수 지침서이다.

朴璡鎬·申大淳·李京子 共著
科學的 硏究態度와 論文作成
(人文·社會科學)
크라운版／239面／4,500원
本書는 人文社會科學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必須的인 論文作成의 指針書이다. 大學生에게 꼭 必要한 Report 작성 요령 및 論文作成의 기초사항부터 전문적인 부분까지, 특히 調査方法을 세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卒業을 앞둔 4학년생의 學士論文이나 碩·博士學位 論文作成 및 관계 學則 등을 자세히 說明하고 있다.

趙永植 著
人類社會의 再建
크라운版／318面／3,500원
現代社會의 문명비판을 통해 人類의 나아갈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 「意識革命의 指針書」로 평가되어 이번에 개정판을 내는 이 책은 75년 초판이래 1년만에 4판을 찍었고 7개국어로 번역 출간된 바 있다. 그리고 미국의 페얼리티킨슨大學에서는 강의 교재로 채택하기도 했다. 主意生成論이라는 철학적 관점으로 일관된, 교육을 통한 人類社會 재건의 이론이 전개되어 있다.

劉鍾烈 著
Man's Search for Peace
菊版／319面／4,000원
새로운 平和의 槪念, 중요 결정요인 그리고 세계 평화구현을 위한 해결책에 관한 세계 碩學들의 논문을 중심으로 수록한 英文書이다. 특히 Newcomb의 세계질서 모델과 조영식박사의 오토피아 모델은 현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의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人類社會再建硏究院 編
主意生成論과 全乘和論 硏究
—現代的 아포리아와 世界秩序의 관련에서—
菊版／416面／4,000원
世界的인 아포리아를 풀기 위한 人間的 信念과 意志를 理論的으로 날카롭게 서술하여 오토피아建設에 이바지한 새로운 指針書이다. 主意生成論과 全乘和論에 입각한 哲學的 次元에서 精神科學과 自然科學의 二重構造를 극복하기 위해서 科學은 科學대로 文明轉換期의 科學技術로서의 座標를 제시하고 思想은 東西洋哲學과 宗敎의 만남으로 世界的 統合을 모색하고 있다.